

대만 해외시장동향 (2025년 1월)

'25. 1. 23(목) / 타이베이시사

= [대만] 정세불안 · 항공기참사 불구하고 방한대만시장 성장세 유지, 다소간의 단체시장 동요를 탄탄한 개별시장이 뒷받침 =

[주요내용 목차]

1. 대만 관광시장 동향

1.1 대만 아웃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4.1~11월 월별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 '24.1~11월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
- '24.1~11월 대만 아웃바운드 동향

1.2 대만 인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4.1~11월 방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
- '24.1~11월 주요국가 방대만 관광객수
- '24.1~11월 대만 인바운드 동향

1.3 대만 기타 관광시장 동향

[대만 인바운드 시장]

- △2024년 대만 인바운드 관광객 785만명, △대만정부 2025 인바운드 마케팅전략, △디지털 노마드 비자 론칭, △국제회의/전시 단체 관광지원제도 운영

[대만 아웃바운드 시장(경쟁국 동향)]

- (베트남) 2024년 외래객 1,760만명 유치, 대만 3위 송출국
- (일본) 대만 춘절연휴 목적지 선호 Top5 중 일본이 3개 차지
- (동남아/일본) 대만 지방공항-동남아/일본 도시 간 항공운항 증대
- (영국) 1.8부, 전자여행허가(ETA) 사전신청 필요

[대만 관광산업]

- 중국 문화여유부, 상하이와 푸젠성 주민 대만 단체관광 재개 발표(1.17)
- 춘절 연휴기간 대만인 해외여행 선호, 국내호텔 예약률 30%대 그쳐
- TTN(Taiwan Travel News), 2025년 관광분야 20대 트렌드 전망

2. 방한관광 현황 및 전망

2.1 방한 대만관광객수 추이 및 특징

- ☞ '24.12월 방한 대만관광객수 1.23 현재 미발표. 2월 동향자료에서 업데이트예정

2.2 방한 항공동향

- △ '24.1~12월 대만-한국 노선 운항편수 및 '19년 대비 회복률
- △ '24.12월 현재 주요 노선 운항편수, △주요 분석

2.3 대만 남부-북부 지역별 방한관광 의향 비교

2.4 향후 전망

- 정세불안·항공기참사 불구하고 방한대만시장 성장세 유지, 다소간의 단체시장 동요를 탄탄한 개별시장이 뒷받침
- (중단기 전망) 연휴 타깃 마케팅 및 방대만 한국인 규모 증대 등 주시 필요

3. 타이베이시사 '25.1월 현재 추진 주요사업 및 동향

1. 대만 관광시장 동향

1.1 대만 아웃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4.1~11월 월별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4년(a)	'23년(b)	'19년(c)	a/b	a/c
1월	1,281,751	696,474	1,299,722	184.0%	98.6%
2월	1,389,474	652,943	1,468,616	212.8%	94.6%
3월	1,321,971	736,283	1,396,026	179.5%	94.7%
4월	1,347,523	830,184	1,415,406	162.3%	95.2%
5월	1,360,781	877,833	1,463,759	155.0%	93.0%
6월	1,566,852	1,131,234	1,570,675	138.5%	99.8%
7월	1,572,801	1,235,822	1,581,016	127.3%	99.5%
8월	1,547,087	1,182,468	1,481,669	130.8%	104.4%
9월	1,364,271	1,080,168	1,372,190	126.3%	99.4%
10월	1,409,979	1,218,643	1,517,174	115.7%	92.9%
11월	1,360,810	1,096,976	1,343,563	124.1%	101.3%
1~11월	15,523,300	10,739,028	15,909,816	144.6%	97.6%
12월		1,056,806	1,191,519		
계		11,795,834	17,101,335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1.23 현재 '24.11월 데이터까지 발표)

○ '24.1~11월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태국	홍콩
1월 (비중)	494,657 (38.6%)	184,626 (14.4%)	92,806 (7.2%)	88,788 (6.9%)	85,805 (6.7%)	92,903 (7.2%)
2월 (비중)	503,512 (36.2%)	209,059 (15.0%)	96,674 (7.0%)	103,828 (7.5%)	100,069 (7.2%)	107,369 (7.7%)
3월 (비중)	481,705 (36.4%)	217,642 (16.5%)	110,599 (8.4%)	106,203 (8.0%)	89,893 (6.8%)	85,741 (6.5%)
4월 (비중)	457,209 (33.9%)	233,630 (17.3%)	112,553 (8.4%)	112,567 (8.4%)	90,222 (6.7%)	92,537 (6.9%)
5월 (비중)	464,763 (34.2%)	254,280 (18.7%)	114,358 (8.4%)	102,593 (7.5%)	81,421 (6.0%)	91,086 (6.7%)
6월 (비중)	574,588 (36.7%)	244,485 (15.6%)	138,090 (8.8%)	102,453 (6.5%)	99,412 (6.3%)	113,477 (7.2%)
7월 (비중)	566,497 (36.0%)	241,358 (15.3%)	136,317 (8.7%)	113,204 (7.2%)	101,768 (6.5%)	107,403 (6.8%)
8월 (비중)	553,185 (35.8%)	244,155 (15.8%)	141,487 (9.1%)	107,477 (6.9%)	103,010 (6.7%)	108,197 (7.0%)

9월 (비중)	472,231 (34.6%)	223,600 (16.4%)	126,284 (9.3%)	99,813 (7.3%)	89,861 (6.6%)	97,835 (7.2%)
10월 (비중)	471,981 (33.5%)	251,975 (17.9%)	129,325 (9.2%)	105,432 (7.5%)	97,612 (6.9%)	108,889 (7.7%)
11월 (비중)	482,696 (35.5%)	238,566 (17.5%)	116,379 (8.6%)	110,458 (8.1%)	94,322 (6.9%)	96,540 (7.1%)
1~11월 (비중)	5,523,024 (35.6%)	2,543,344 (16.4%)	1,314,872 (8.5%)	1,152,636 (7.4%)	1,033,395 (6.7%)	1,101,977 (7.1%)
(b)'23 비중*	35.8%	14.9%	8.1%	7.2%	6.6%	6.3%
(c)'19 비중*	28.7%	23.6%	7.1%	5.0%	4.9%	9.8%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각 년도 대만 아웃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4.1~11월 대만 아웃바운드 동향

- 대만인의 '24년 11월 아웃바운드 관광객수는 1,360,810명으로 2019년 동기(1,343,563명) 대비 101.3%, 지난해 동기(1,096,976명) 대비로는 124.1% 회복하였음. 11월 아웃바운드 규모는 10월에 비해 약 4만명 가량 감소하였으나 11월은 전통적으로 관광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 11월 규모는 선전했다는 평가가 가능함. 실제 2019년 동기 규모를 넘어섰는데 올해 월별 아웃바운드 관광객수가 2019년 수준을 넘어선 것은 8월에 이어 2번째로 11월 아웃바운드 열기가 나뉠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1~11월 아웃바운드관광 회복률(97.6%)은 인바운드관광 회복률(64.9%)에 비해 32.7%p나 월등히 높은 수치로 대만의 2024년 관광 회복은 아웃바운드 중심으로 진행되는 양상임
- 11월의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를 분석해 보면 전체 아웃바운드관광객수가 전달에 비해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일본과 베트남은 전달에 비해 각각 2.3%, 4.8%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음. 1~11월 기간 각 국가별 점유율은 일본이 35.6%로 여전히 굳건한 1위를 수성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16.4%, 한국 8.5%, 베트남 7.4%, 홍콩 7.1%, 태국 6.7%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음

1.2 대만 인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4.1~11월 방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4년(a)	'23년(b)	'19년(c)	a/b	a/c
1월	589,961	254,359	867,711	231.9%	68.0%

2월	648,348	369,098	956,202	175.7%	67.8%
3월	811,608	486,171	1,079,498	166.9%	75.2%
4월	610,146	553,211	1,101,393	110.3%	55.4%
5월	581,748	516,396	1,039,758	112.7%	56.0%
6월	571,510	509,693	932,697	112.1%	61.3%
7월	539,454	543,388	988,765	99.3%	54.6%
8월	616,922	590,458	1,030,937	104.5%	59.8%
9월	575,455	538,658	794,415	106.8%	72.4%
10월	661,115	621,649	939,131	106.3%	70.4%
11월	747,800	689,105	990,397	108.5%	75.5%
1~11월	6,954,067	5,672,186	10,720,904	122.6%	64.9%
12월		814,765	1,143,201		
계		6,486,951	11,864,105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1.23 현재 '24.11월 데이터까지 발표)

○ '24.1~11월 주요국가 방대만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홍콩/마카오	일본	한국	미국	베트남
1월 (비중)	86,321 (14.6%)	95,693 (16.2%)	113,192 (19.2%)	42,513 (7.2%)	17,110 (2.9%)
2월 (비중)	101,076 (15.6%)	101,464 (15.6%)	110,210 (17.0%)	43,979 (6.8%)	39,059 (6.0%)
3월 (비중)	133,591 (16.5%)	151,756 (18.7%)	93,556 (11.5%)	64,704 (8.0%)	36,961 (4.6%)
4월 (비중)	90,075 (14.8%)	86,587 (14.2%)	68,822 (11.3%)	51,973 (8.5%)	33,396 (5.5%)
5월 (비중)	94,104 (16.2%)	98,184 (16.9%)	71,240 (12.2%)	46,849 (8.1%)	28,178 (4.8%)
6월 (비중)	109,604 (19.2%)	76,108 (13.3%)	51,656 (9.0%)	68,660 (12.0%)	32,445 (5.7%)
7월 (비중)	119,382 (22.1%)	73,734 (13.7%)	51,663 (9.6%)	53,911 (10.0%)	33,748 (6.3%)
8월 (비중)	147,276 (23.9%)	111,759 (18.1%)	61,078 (9.9%)	43,803 (7.1%)	33,154 (5.4%)
9월 (비중)	88,230 (15.3%)	109,795 (19.1%)	75,062 (13.0%)	39,185 (6.8%)	31,483 (5.5%)
10월 (비중)	93,286 (14.1%)	116,692 (17.7%)	83,668 (12.7%)	52,822 (8.0%)	32,076 (4.9%)
11월 (비중)	100,153	145,000	99,489	65,821	26,701

	(13.4%)	(19.4%)	(13.3%)	(8.8%)	(3.6%)
1~11월 (비중)	1,163,098 (16.7%)	1,166,772 (16.8%)	879,636 (12.6%)	574,220 (8.3%)	344,311 (5.0%)
(a)'23 비중*	18.5%	14.3%	11.5%	8.2%	5.9%
(b)'19 비중*	14.8%	18.3%	10.5%	5.1%	3.4%
구 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중국
1월 (비중)	28,016 (4.7%)	32,935 (5.6%)	32,365 (5.5%)	38,750 (6.6%)	30,736 (5.2%)
2월 (비중)	53,540 (8.3%)	24,322 (3.8%)	30,802 (4.8%)	33,362 (5.1%)	37,719 (5.8%)
3월 (비중)	50,695 (6.2%)	52,667 (6.5%)	47,445 (5.8%)	44,794 (5.5%)	30,219 (3.7%)
4월 (비중)	41,159 (6.7%)	37,666 (6.2%)	43,026 (5.5%)	35,782 (5.9%)	28,269 (4.6%)
5월 (비중)	34,565 (5.9%)	35,263 (6.1%)	34,843 (6.0%)	33,413 (5.7%)	30,208 (5.2%)
6월 (비중)	25,021 (4.4%)	33,454 (5.9%)	26,575 (4.6%)	42,089 (7.4%)	30,918 (5.4%)
7월 (비중)	20,073 (3.7%)	18,991 (3.5%)	24,042 (4.5%)	36,631 (6.8%)	36,034 (6.7%)
8월 (비중)	23,303 (3.8%)	22,950 (3.7%)	22,863 (3.7%)	35,978 (5.8%)	37,092 (6.0%)
9월 (비중)	33,374 (5.8%)	25,740 (4.5%)	23,974 (4.2%)	32,048 (5.6%)	32,040 (5.6%)
10월 (비중)	36,474 (5.5%)	39,865 (6.0%)	36,593 (5.5%)	38,746 (5.9%)	35,441 (5.4%)
11월 (비중)	38,575 (5.2%)	52,764 (7.1%)	33,566 (4.5%)	44,042 (5.9%)	48,823 (6.5%)
1~11월 (비중)	384,792 (5.5%)	376,617 (5.4%)	356,094 (5.1%)	415,635 (6.0%)	377,499 (5.4%)
(a)'23 비중*	6.7%	7.2%	6.1%	5.9%	3.5%
(b)'19 비중*	4.5%	3.9%	3.5%	4.3%	22.9%

[출처] 대만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각 년도 대만 인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4.1~11월 대만 인바운드 동향

- 대만의 11월 인바운드 관광객수는 747,800명으로 2019년 동기(990,397명) 대비 75.5%, 2023년 동기(689,105명) 대비 108.5% 회복하였음. 3월 이후 처음으로 70만명대 방대만 관광객수를 기록한 것으로 2019년 동기 대비로도 2024년 월별 수치에서 최고 회복률을 기록

하여 4월 지진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형국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2024년 인바운드관광객수 예측치는 당초 목표 1,000만명에 크게 못미치는 785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만 교통부 관광서는 2025년에도 다시 1,000만명 목표치를 제시하였음
- 주요 국가별 방대만 관광객수는 일본과 한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음. 각각 145,000명과 99,489명이 방문하여 전체 외래객수 가운데 19.4%와 13.3%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홍콩과 마카오는 100,153명으로 13.4%의 점유율로 2번째로 많은 방대만 관광객수를 기록했으나 1~11월 전체 비중 16.7%에 비해서는 3.3%p 하락하였음. 이외 중국과 싱가포르, 미국의 11월 방대만 관광객수가 올해 각국의 전체 비중보다 상회하는 기록을 보였음

1.3 대만 기타 관광시장 동향

대만 인바운드시장

- (2024년 대만 인바운드 관광객 785만명) △2024년 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는 785만~787만명 예상 △일본과 한국 모두 100만명 넘어섬 △당초 목표인 1천만명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①지진 ②태풍 ③양안관계로 분석
- (대만정부 2025 인바운드 마케팅 전략) △인바운드 관광객 1천만명 △관광객 1일 평균 소비액 USD185('26년 USD190, '27년 USD195) 목표
 - △(해외조직망 확대) 구미주, 호주, 인도시장 공략 거점 마련(시애틀/암스테르담/시드니 연락사무소 설치 및 뭄바이지사(現 사무소) 개소) △(관광지출확대) 면세점 등 쇼핑 인프라 확대 △관광지출이 큰 고급 쇼핑단체 유치 주력 △(틈새시장 공략) 오사카 엑스포 계기 환승객 유치 △(특별 프로모션) 외국인 관광객 대상 고속철도 1+1 프로모션 실시
- (디지털 노마드 비자 론칭)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1.1일부터 전세계 젊은 세대 관광객 유치 목적 '디지털 노마드 비자' 출시 발표
 - (신청조건) △타 국가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 유경험자 △30세 이상 연간소득 USD40,000 이상 △20세~30세 연간소득 USD20,000 이상
 - (비자혜택) 3개월 신청 후 추가 3개월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 (국제회의/전시 단체 관광지원제도 운영) 대만 경제부, 대만 내 국제회의/

전시 개최 기관/기업 대상 행사 전후 참가자 투어비용 1인당 최대 NT\$2,000, 건당 최대 NT\$600,000 지원(2년차, 한도 NT\$100,000 증액)

대만 아웃바운드시장(경쟁국 동향)

- (베트남) 베트남, '24년 외래관광객 1760만명 유치, 대만이 전년 대비 51% 증가한 128만명 송출로 한국과 중국에 이어 3위 차지, 업계는 전자비자제도 실시의 성과로 분석
- (일본) 아고다, 춘절연휴 대만인 해외여행 예약 50% 증가, 목적지 선호 Top5 도시 중 일본이 3개 차지 발표
 - 도쿄 1위, 방콕 2위, 오사카 3위, 후쿠오카 4위, 서울 5위
- (동남아/일본) 대만 지방공항과 동남아/일본 도시 간 항공운항 증대
 - (타이동, 전세기편) 태국 방콕(4월), 베트남 호치민(4월) 및 다낭(4월, 8월)
 - (가오슝, 정기편) 일본 신치토세 및 오키나와, 태국 방콕 및 치앙마이(이상 1월)
- (영국) 1.8일 부, 영국 여행시 전자여행허가(ETA) 사전신청 필요
 - (대상국) 미국, 캐나다, 한국, 대만 등 48개 국
 - (신청절차) 온라인상 여권 및 사진 업로드 후 수수료 NT\$410 납부

대만 관광산업

- 중국 문화여유부, 상하이와 푸젠성(福建省) 주민 대만 단체관광 재개 발표(1.17)
 - 타이베이-상하이 도시포럼('24. 12월, 타이베이)에서 상하이시 부시장 이 상하이시민의 대만 단체관광 재개 추진 언급 후, 라이칭더 총통이 신년회에서 양안관광 재개 희망 언급후 17일만에 중국이 전격 발표
 - 이로 인해 여행사, 호텔 등 관광 관련 주식의 주가가 급등했으며, 대만 관광업계는 크게 환영하며 단체 맞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첫 단체는 2.13일 '타오위안등불축제' 참가단이 될 것으로 예상

<양안관광 관련 주요 사건>

시기	내용
'23. 상반기	중국(문화여유부), 해외여행 재개지역 3차례 발표에 대만 불포함
'23. 8. 23	대만(대륙위원회), 제3국 거주 중국인 대만여행 회복, 양안 단체관광 재개, 단, 초기 1일 2천명 제한 [중국측 회신 필요]

'23. 11. 3.	대만(교통부), 3.1일부터 중국 단체관광 재개, 대만여행사 중국 단체관광객 접수 가능 발표
'24. 2. 7.	대만(교통부), [중국측 회신없어] 6.1일부 중국 단체관광 금지
'24. 8. 22.	중국(푸젠성), 푸젠성 주민 마주(馬祖) 단체/자유여행 실시
'24. 9. 27.	중국(푸젠성), 푸젠성 주민 진먼(金門) 단체/자유여행 실시
'24. 12. 17.	중국(상하이부시장), 상하이 시민 대만 단체관광 추진 발표
'25. 1. 1.	대만(총통), 양안교류 기대, 양안관광 실무협상 제안
'25. 1. 17.	중국(문화여유부), 푸젠성 및 상하이 주민 대만 단체여행 재개 발표

○ **춘절 연휴기간 대만인 해외여행 선호, 국내호텔 예약률 30%대 그쳐**

- 관광서, 9일간의 춘절 연휴기간 1일 평균 국내 숙박시설 예약률은 역대 최저치인 35.65%라고 발표
- 반면, 타오위안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춘절연휴기간 공항이용객수는 15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 1일 평균 14만으로 팬데믹 이전 '19년 춘절때와 비슷
- 한편, 여행 인플루언서들은 비싼 호텔가격, 낙후된 시설, 1회용품 미지급으로 불편 등을 국내여행을 기피하는 이유로 들고 있으며, 엔저가 계속되는 한 대만인들은 일본여행을 선호할 것이라고 분석

○ **TTN(Taiwan Travel News) 2025년 관광분야 20대 트렌드 전망**

#	내용
1	TSMC 구마모토 공장 설립에 따라 대만-일본 규슈지역간 항공편 증대(중화항공 등)
2	타이거에어, 일본 노선 확대(現 20개 노선/최다, 연내 최소 3개 신규노선 추가)
3	에바항공, 북미노선 확대(델러스 추가 직항편 운항)
4	스타룩스, 4월부터 고베 노선 운항, 장거리 구미주 노선 추가 신청 예정
5	미국항공사, 대만시장 적극 개척, 유나이티드 가오슝-도쿄, 델타 타이베이-시애틀 등
6	에티하드항공, 타이베이-아부다비 취항
7	ezFly(易飛旅遊), 비엠티 GSA로 대만-베트남 관광 홍보
8	2025 타이베이 & 신베이 세계 마스터 게임으로 스포츠�관광 촉진
9	대만관광서, 2025년 인바운드 관광객 1천만명 목표
10	2025 오사카 엑스포 개최
11	디즈니 어드벤처 크루즈, 12.15 대만 첫 운항
12	리조트월드 크루즈 '스콜피온'호 동남아 운항 개시
13	홍콩관광청 '스몰럭셔리' 테마 마케팅 추진

14	2024 타이베이-상하이 도시포럼 제안에 따른 양안관광 기대
15	호텔업계 일회용품 사용 금지
16	일본, 사전입국제도 시행
17	한국, K-ETA면제 2025년까지 연장
18	태국 4천만명, 베트남 2500만명, 2025년 인바운드 관광객 목표 역대 최대치
19	중화항공, 유나이티드 노선 재개로 괌 열품 재현 기대
20	영국, 전자비자제도(ETA) 시행

2. 방한관광 현황 및 전망

2.1 방한 대만관광객수 추이 및 특징

👉 2024.12월 방한 대만관광객수 1.23 현재 미발표로 차후 업데이트 예정

○ ('24.1~11월 방한 대만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4년(a)	'23년(b)	'19년(c)	a/b	a/c	'24년 전체 방한객수(d)	a/d
1월	93,589	49,477	87,954	189.2%	106.4%	880,881	10.6%
2월	96,704	47,970	94,559	201.6%	102.3%	1,030,244	9.4%
3월	115,578	63,504	98,510	182.0%	117.3%	1,491,748	7.7%
4월	117,606	45,434	113,072	258.9%	104.1%	1,462,797	8.0%
5월	116,956	66,654	101,779	175.5%	114.9%	1,418,463	8.2%
6월	144,255	97,365	118,437	148.2%	121.8%	1,417,274	10.2%
7월	142,721	103,566	113,587	137.8%	125.6%	1,408,499	10.1%
8월	148,735	98,854	109,273	150.5%	136.1%	1,563,221	9.5%
9월	126,130	92,411	102,758	136.5%	122.7%	1,464,300	8.6%
10월	133,433	96,845	127,944	137.8%	104.3%	1,600,263	8.4%
11월	119,505	86,141	102,241	138.7%	116.9%	1,361,076	8.8%
1~11월	1,355,212	848,221	1,170,114	159.8%	115.8%	15,098,766	9.0%
12월		80,633	90,379				
계		960,607	1,260,493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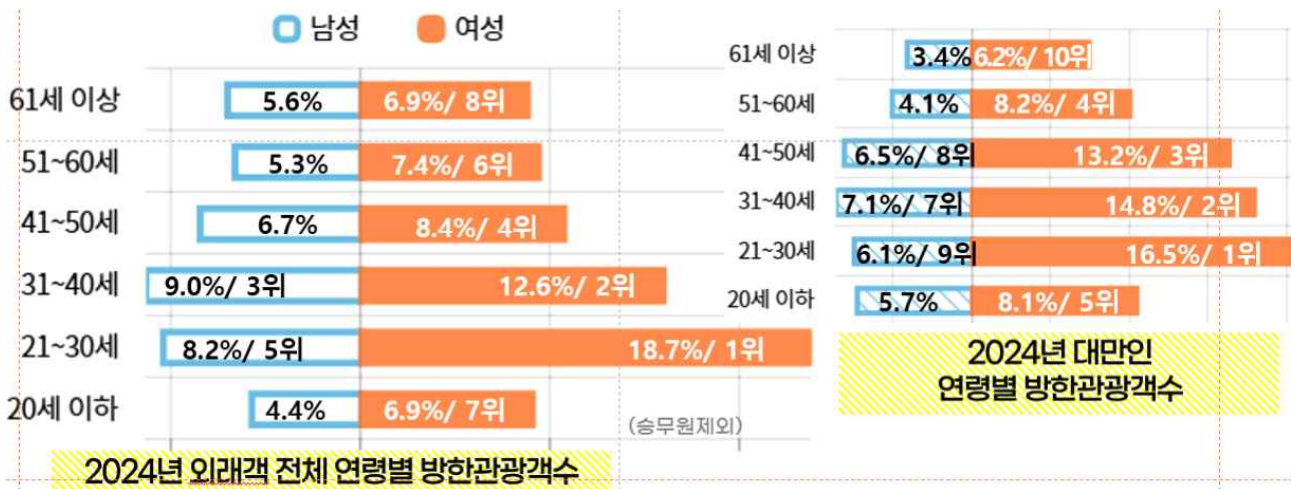
- 2024년 11월 방한 대만관광객수는 119,505명으로 2019년 동기 (102,241명) 대비 116.9%, 지난해 동기(86,141명) 대비 138.7% 회복하였음
- 전체 글로벌 방한객수에서 차지하는 11월 대만 관광객 비중은 8.8%로 1~11월 전체 평균 9.0%에 비해서는 0.2%p 적으나 전달인 10월 (8.4%)에 비해서는 0.4%p 증가하였음
- 12월 마지막 한 달의 여러 상황에 따라 최종 방한 대만관광객수 수치는 변동되겠지만, 아울러 12월 한국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영향을 받겠지만 최종적으로 147만 내외의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10월 한-대만 양측 관광객수 합계는 217,101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1~10월 누적 양측 관광객 수는 2백만명을 넘어서 연말까지는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 수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24년 한국-대만 방문객수

구 분	대만→한국	한국→대만	계
1월	93,589	113,192	206,781
2월	96,704	110,210	206,914
3월	115,578	93,556	209,134
4월	117,606	68,822	186,428
5월	116,956	71,240	188,196
6월	144,255	51,656	195,911
7월	142,721	51,663	194,384
8월	148,735	61,078	209,813
9월	126,130	75,062	201,192
10월	133,433	83,668	217,101
1~10월	1,235,707	780,147	2,015,854
11월	119,505		

- 한편 대만 및 글로벌 관광객의 연령 특성을 비교하면 아래 그래프와 같음(1~11월 기준)



-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및 대만 관광객 공히 1위 방한관광 연령층은 20대 여성층으로 각각 18.7% 및 16.5%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 글로벌 관광객에서는 2위는 30대 여성, 3위 30대 남성, 4위 40대 여성, 5위 20대 남성이 차지하여 남성 계층도 비교적 비중있는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대만 관광객에서는 2위는 30대 여성, 3위 40대

여성, 4위 50대 여성, 5위 20세 미만 여성으로, 1~5위 모두 여성층이 차지하여 여성 비중이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음

○ 입국 루트별 대만관광객수 및 비중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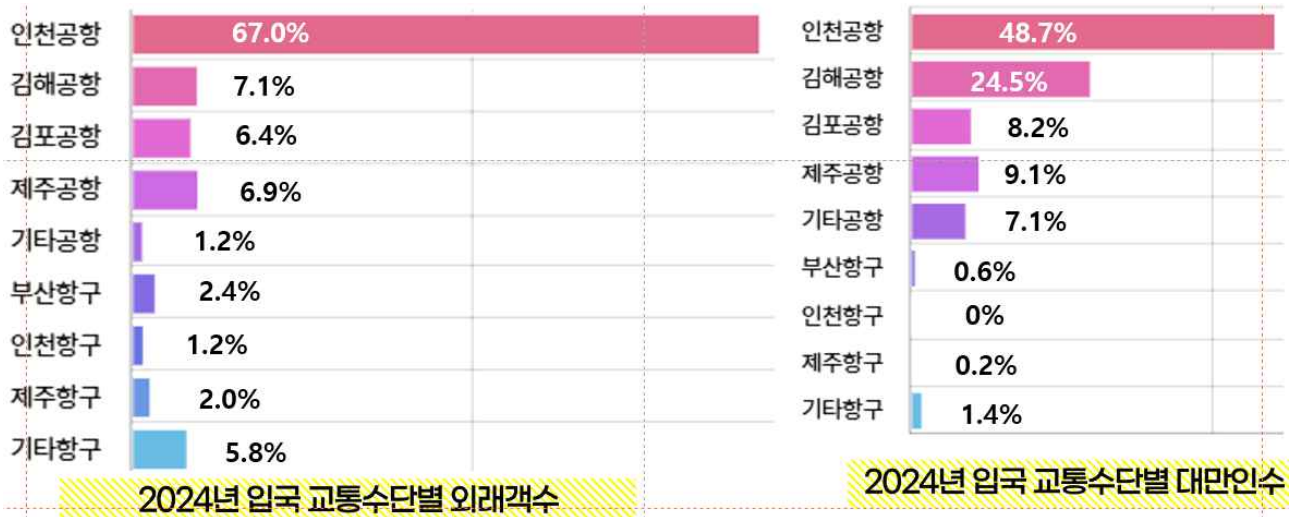
구 분	전체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기타공항
'24.1월	93,589	54,497 (58.2%)	18,191 (19.4%)	8,845 (9.5%)	5,104 (5.5%)	6,700 (7.2%)
'24.2월	96,704	51,353 (53.1%)	21,317 (22.0%)	8,196 (8.5%)	7,033 (7.3%)	8,522 (8.8%)
'24.3월	115,578	55,121 (47.7%)	28,464 (24.6%)	8,982 (7.8%)	9,560 (8.3%)	10,052 (8.7%)
'24.4월	117,606	58,771 (50.0%)	26,436 (22.5%)	9,321 (7.9%)	10,384 (8.8%)	8,800 (7.5%)
'24.5월	116,956	58,503 (50.0%)	29,850 (25.5%)	8,702 (7.4%)	11,815 (10.1%)	7,247 (6.2%)
'24.6월	144,255	69,017 (47.8%)	33,070 (22.9%)	10,433 (7.2%)	13,766 (9.5%)	10,791 (7.5%)
'24.7월	142,721	64,385 (45.1%)	35,858 (25.1%)	12,625 (8.8%)	14,217 (10.0%)	11,693 (8.2%)
'24.8월	148,735	65,366 (43.9%)	36,370 (24.5%)	12,205 (8.2%)	14,898 (10.0%)	11,564 (7.8%)
'24.9월	126,130	60,896 (48.3%)	32,055 (25.4%)	9,755 (7.7%)	13,629 (10.8%)	8,391 (6.7%)
'24.10월	133,433	64,383 (48.3%)	35,785 (26.8%)	11,670 (8.7%)	13,229 (9.9%)	7,768 (5.8%)
'24.11월	119,505	57,861 (48.4%)	34,874 (29.2%)	11,041 (9.2%)	10,191 (8.5%)	5,189 (4.3%)
'24.1~11	1,355,212	660,153 (48.7%)	332,270 (24.5)	111,775 (8.2%)	123,826 (9.1)	96,717 (7.1)
'23년 전체	960,607	548,980 (57.1%)	197,688 (20.6%)	70,765 (7.4%)	61,441 (6.4%)	71,581 (7.5%)
'19년 전체	1,260,493	753,866 (59.8%)	240,877 (19.1%)	60,225 (4.8%)	58,558 (4.6%)	113,348 (9.0%)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참고] ()은 전체 입국루트에서 차지하는 비중

- 11월 입국루트별 대만 관광객수에 따르면 인천공항 비중은 48.4%로 여느 월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김해공항 입국 비중이 29.2%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이밖에 김포공항 비중은 9.2%로 전달에 비해 0.5%p 증가하였고 제주공항은 8.5%로 1.4%p 하락하였음
- 대만 및 글로벌 관광객의 입국교통수단별 비중을 비교하면 아래 그

래프와 같음(1~11월 기준)

-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방한관광객의 인천공항 비중은 67.0%로 압도적이거나 반면 대만 관광객은 48.7%만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18.3%p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글로벌 관광객의 김해 공항 입국 비중은 7.1%로 대만 관광객의 24.5%와는 17.4%p의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만큼 대만관광객이 지역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고 판단됨



2.2 방한 항공동향

○ '24년 1~12월 대만-한국 노선 운항편수 및 '19년 대비 회복률 (단위 : 편)

구 분	'24년(a)	'23년(b)	'19년(c)	회복률(a/b)	회복률(a/c)
1월	2,062	1,011	1,960	204.0%	105.2%
2월	2,055	1,089	1,834	188.7%	112.0%
3월	2,086	1,313	1,988	158.9%	104.9%
4월	1,964	1,513	1,938	129.8%	101.3%
5월	2,067	1,556	2,023	132.8%	102.2%
6월	1,994	1,504	1,929	132.6%	103.4%
7월	2,089	1,598	1,969	130.7%	106.1%
8월	2,127	1,585	2,040	134.2%	104.3%
9월	2,198	1,685	2,100	130.4%	104.7%
10월	2,164	1,768	2,488	122.4%	87.0%
11월	2,170	1,685	2,353	128.8%	92.2%
12월	2,401	1,891	2,470	127.0%	97.2%
계	25,377	18,198	25,092	139.4%	101.1%

[출처]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기준] 정기+부정기, 출발편+도착편

○ '24.12월 현재 주요 노선 운항편수

(단위 : 편)

구 분	'24.12월	'24.11월	'24.10월	'24.9월
타이베이-인천	718 (104.7%)	686 (94.4%)	727 (92.8%)	783 (108.8%)
타이베이-부산	558 (103.9%)	537 (100.6%)	534 (105.7%)	505 (106.1%)
타이베이-대구	124 (105.1%)	118 (97.5%)	121 (109.0%)	111 (93.3%)
타이베이-제주	158 (101.9%)	155 (88.6%)	175 (97.2%)	180 (96.8%)
타이베이-청주	111 (185.0%)	60 (69.0%)	87 (71.9%)	121 (97.8%)
타이베이(송산)-김포	124 (103.3%)	120 (96.8%)	124 (103.3%)	120 (96.8%)
가오슝-인천	186 (103.9%)	179 (108.5%)	165 (97.1%)	170 (95.5%)
가오슝-부산	88 (101.1%)	87 (147.5%)	59 (98.3%)	60 (96.8%)
가오슝-김포	118 (107.3%)	110 (112.2%)	98 (111.4%)	88 (102.3%)
따이중-인천	150 (127.1%)	118 (159.5%)	74 (123.3%)	60 (176.5%)

[출처]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기준] 정기+부정기, 출발편+도착편

[참고] ()는 전월 대비 회복률

○ 주요 분석

- '24.12월 대만-한국 항공노선 운항편수는 2,401편으로 2023년 동기(1,891편) 대비로는 127.0%, 2019년 동기(2,470편) 대비로는 97.2% 회복하였음. 아울러 12월 운항편수는 전달인 11월(2,170편)에 비해 10.6% 증가하였으며 2024년 월별 운항편수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이러한 증가세는 항공사별 증편 등에 따른 것으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항공사	노선	내용
진에어	타이베이-무안	'24.12.3부터 주7회 운항
진에어	타이중-인천	'24.12.19부터 주7회 운항
제주항공	타이베이-무안	'24.12.10 주2회 운항
에어로케이	타이베이-청주	'24.12.10부터 주7회 증편
스쿠트항공	타이베이-인천	'24.12.3부터 주4회에서 주5회로 증편/ '25.1.23부터 주7회로 증가
이스타항공	타이베이-청주	'24.12.30부터 주7회 운항

- 다만 '24.12.29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 무안행 노선이 모두 중지되고 제주항공의 가오슝-김포 노선도 '24.12.31까지만 운항되는 등으로 인해 '25.1월에는 대만-한국 운항편수가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25년도에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양안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이 또한 대만-한국 노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고 있으나 대만내 조업인력이 충분치 않고 슬롯 변동이 어려우며, 타깃층이 달라 항공업계에서는 당장 한-대만 운항편수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음
- 한편 2024년 연간 운항편수는 25,377편으로 '19년(25,092편) 대비 101.1% 회복하였고 '23년(18,198편) 대비로는 139.4% 회복하였음. 이러한 증가치는 2024년 방한대만관광객수 증가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특히 대만 지진 등의 영향으로 같은 노선을 탑승하는 한국인의 방대만 방문이 줄어들어 그만큼 대만인들에게의 공급좌석은 더욱 늘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2.3 대만 남부-북부 지역별 방한관광 의향 비교

- (비교 활용 데이터) 타이베이에서 2024년 실시한 설문조사
 - (타이베이 북부지역대상) '24.9월 K-관광 로드쇼 in 타이베이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3,062명)
 - (가오슝 남부지역대상) '24.12월 K-pop&미식축제 in 가오슝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1,821명)
- 주요응답비교

구 분	12월 가오슝 행사(남부)	9월 타이베이 행사(북부)
①한국 방문경험	59.4%	70.6% <11.2%p ↑ >
②해외여행목적지로 한국 인지도	3.14	3.34<0.2p ↑ >
③해외여행목적지로 한국 선호도	3.97	4.08<0.11p ↑ >
④3년내 해외여행의향	4.36	4.51<0.15p ↑ >
⑤향후 3년내 가장 방문하고 싶은 국가	한국 52.7%, 일본 31.6%	한국 62.5%, 일본 25.4%
⑥방한여행 결정 시 어떤 정보 영향 가장 큼	(1) 여행 관련 블로그 41.9% (2) SNS/동영상플랫폼 38.2%	(1) SNS/동영상플랫폼 44.9% (2) 여행 관련 블로그 38.7%
⑦한국여행시 여행 형태	(1) 완전 자유여행 61.6% (2) 에어텔 15.8% (3) 일부 패키지 여행 11.8% (4) 전체 패키지 여행 6.9%	(1) 완전 자유여행 67.4% (2) 에어텔 13.5% (3) 일부 패키지 여행 10.2% (4) 전체 패키지 여행 5.2%

⑧ 한국여행시 어떤 도시 방문의향	(1) 서울 이외 도시/지역도 함께 방문 79.0% (2) 서울만 13.2%	(1) 서울 이외 도시/지역도 함께 방문 84.5% (2) 서울만 8.9%
--------------------	---	--

○ 주요분석

- 우선 한국방문 경험을 보면 대만 북부가 남부지역보다 11.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오슝보다 타이베이발 방한항공편이 월등히 많은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해외여행목적지로서 한국의 인지도도 북부 지역이 3.34점으로 대만 남부 3.14점보다 0.2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에 대한 해외여행목적지로서의 선호도도 북부가 남부보다 0.11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향후 3년내 가장 방문하고 싶은 국가에서도 북부 지역이 한국을 꼽은 비율이 남부보다 9.8%p 높게 나타났음. 이는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방한관광 홍보마케팅이 타이베이 등 북부 지역 중심으로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음
- 한편 3년내 해외여행 의향을 보면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0.15점 더 높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해외여행 의향이 북부지역이 남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는 경제력과 항공노선에 대한 접근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방한여행 결정 시 어떤 정보가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양지역 모두 블로그와 SNS/동영상플랫폼이 모두 2대 요인이었으나 남부는 블로그가 북부는 SNS가 좀더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하였음
- 한국여행시 여행형태는 두 지역 모두 자유여행이 압도적이긴 했으나 미세하게 차이를 보임. 남부가 북부보다 개별여행보다는 패키지 여행 의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형태는 실제 여행형태에서도 드러나는데 여행 및 항공업계의 정성적 평가에 따르면 북부의 개별 대 단체 여행 비중은 7대3 정도, 남부는 6대4 정도로 평가되고 있음
- 한국여행 시 어떤 도시를 방문하고 싶은지에 대한 조사에서도 남부는 서울만 가겠다는 의향이 13.2%로 북부의 8.9%보다 높게 나왔는데 한국 여행 경험이 북부보다 적은 남부로서는 우선 수도권 중심

- 관광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남부지역의 방한관광 인지도와 선호도는 북부지역보다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역으로 분석한다면 그만큼 남부지역은 홍보마케팅에 따른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2.4 향후 전망

- 정세불안·항공기참사 불구 방한 대만시장 성장세 유지, 다소간의 단체 시장 동요를 탄탄한 개별시장이 뒷받침
 - '24.12.3 계엄령에 이은 국정혼란 지속상황과 '24.12.29 무안공항 참사는 현지 위험요소에 민감한 '가족여행층'과 '중노년층', '기업 인센티브 그룹' 등 단체의 한국 목적지 결정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함
 - 실제 사고 발생 직후 기업 인센티브단체 중심 방한 취소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그 추이가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대만 방한시장이 국내 상황에 따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지 여부는 향후 3~4월까지의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여행사들은, 1월 춘절 상품의 경우 취소수수료 발생의 이유로 취소 건 수가 많지 않았으나, 단체의 봄시즌 한국상품 기피로 인한 판매 부진을 우려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24년 하반기부터 대만 각 도시(타이베이/타이중/가오슝)와 동남아 중소도시(푸꾸옥/치앙마이/사바/호치민 등) 간 신규 항공노선 취항 및 전세기 운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들 지역이 주춤하는 방한단체수요를 어느 정도 잠식할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24.12월 ~ '25.1월 기준 대만인 방한관광객수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방한 핵심계층이 여행지 위험요소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20-30대 개별여행객이기 때문인 것으로 조심스레 분석하며, 이들의 방한수요 성장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아울러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체여행시장 중심으로 참사 초기 동요 분위기가 있었으나 한 달 여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충격에서 벗어나

고 있는 상황이며 마이스 인센티브단체들도 초기에는 목적지 변경 등도 고려하는 모습이었으나 일단 1분기에는 정해진 목적지를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진정되면서 한국을 목적지 선택 대상으로 다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 2025년 대만 최대 방한 마이스 인센티브단체 가운데 한 기업은 직원의 희망조사에 따라 한국 및 아시아 2개국에 인센티브 여행을 보낼 계획으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선택한 비율이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짐

○ (중단기 전망) 1~2분기 연휴 타깃 마케팅 및 방대만 한국인 규모 증대 여부 등 주시 필요

- 대만인의 방한 관광에 있어 2~3월은 전통적인 비수기로 예약률 등 선행지표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 그 양상은 기업/업체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전통적인 비수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1~2분기에 이어지는 연휴 기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월 춘절연휴(1.25~2.2, 9일)에 이어, 2월 소연휴(2.28~3.2, 3일), 4월 어린이날&청명절 연휴(4.3~4.6, 4일)가 예정돼 있어, 국내 업계에서 동 시즌을 타깃으로 하는 대만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면 추가 방한수요 진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2024년도 방한 대만관광객은 역대 최고치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 이는 여행업계, 항공업계, 국내 신규 관광콘텐츠 공급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린 결과로 평가됨. 올해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긍정 요소가 결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항공 관련해서는 운항편수와 공급좌석의 지속적인 유지 확대가 필요한 가운데 한국인의 방대만 관광이 다시 활황을 맞이할 경우 방한 대만 관광객을 위한 좌석 공급과 다소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음. 지난해에는 0403 지진 등으로 방대만 한국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음

3. 타이베이지사 '25.1월 현재 추진 주요사업 및 동향

- 3.1 한-대만 B2B 관광콘텐츠 페스티벌(4.10) 참가기관 모집(1.20-2.7)
- 3.2 대만 도서지역(평후) 방한 전세기 상품 지원(1월_약 270명)
- 3.3 대만 예능 '산과바다에서의 하룻밤' 한국편 방영(1월)
- 3.4 2025년 상반기 여행업계 모객광고지원(1~6월)
- 3.5 화천산천어축제 및 한국일상안전 홍보 인플루언서 팸투어(1.17-21)
- 3.6 세종학당 '24년도 3학기 종업식 개최(1.9)
- 3.7 대만 로하스(LOHAS)협회 강좌참석(1.7 지사장, 한국ESG관광 발표)
- 3.8 2025년 방한야구상품 개발 준비 및 여행사(三創) 미팅(1.17)
- 3.9 (주요 업무협의) 제주항공(1.7) 경북도 관광과(1.13), 대만 여행사 뤼텐샤(旅天下)(1.15) 전남도&재단 화상회의(1.23)

※ 언론매체(뤼치, 뤼바오, 자유시보, TVBS신문망, 연합보, 공상시보, 중국시보, 중앙통신사(CNA) 등), 대만 관광서, 대만관광협회, 대만여행업품질보장협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및 업계동향 등 종합. 끝.